

지역 소식통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6일 시청 2층 상환실에서 '2024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찬준 부시장을 비롯한 협의회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계획 보고와 다문화가족 고향 나들이사업 지원대상자를 선정 심의했다.

올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으로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기초학습 및 진로 설계 지원, 멘토링 사업 등 학령기 다문화 자녀가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지원을 확대하며, △외국인 주민 및 결혼이민자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통번역 서비스, 방문교육 등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우리쌀 활용교육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역량 있는 쌀 교육 리더 육성을 위해 쌀 소비 확대를 위해 농업인 및 지역농촌소비자 대상으로 쌀가루를 활용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전체 쌀 소비량은 30년 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전년 대비 쌀을 활용한 식품에 대한 수요는 8.6% 증가했다. 쌀 소비량은 감소 추세지만 짧은층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이색적인 맛을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쌀을 활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대체식품 속에서도 여전히 쌀은 주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은 농업인 및 지역농촌 소비자를 포함한 20명이며, 지난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주 2회(화, 금) 농업기술센터 지역농업기술관 조리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쌀 소비촉진 및 확대를 위해서 쌀 식문화와 신세대의 식생활 트렌드를 반영해 앞으로 '쌀 소비 촉진'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곳곳 동네 문화장소 만들어요”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완주문화장날@' 사업 공모 문화장소 발굴부터 활용까지 15분 문화생활권 구축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가 완주 곳곳 생활권 내 문화장소를 발굴 및 활용하는 문화적 재생사업 '2024 완주문화장날@'(이하 완주문화장날)을 오는 5월 3일까지 공모 접수한다. '완주문화장날'은 주민 주도형 장소 기반 문화적 재생 사업으로 누구나 어디서든 누릴 수 있는 '15분 문화생활권' 조성 및 활성화를 목표로 5년 차

추진 중이다.

특히 '완주문화장날'은 우리 동네 일상 장소 및 유휴공간의 기능과 역할을 재발견하고 재해석한다는 점, 나아가 이곳을 주민 스스로 문화적 방식으로 활용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지를 얻고 있다. 올해 '완주문화장날'은 경험과 성장에 따라 단계별(기초·심화)로 지원한다.

장소실험 단계인 '기초형'은 생활권 내 공공이용이 가능한 신규 장소 등 문화적 장소화를 위한 가치 발굴 및 문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소규모 환경구축비 등 최대 800만원이 지원된다.

장소활성화 단계인 '심화형'은 '완주문화장날'으로 발굴된 곳들이 지속 및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 유형으로 장소 기반 문화 기획 및 환경개선, 콘텐츠 제작 등 1곳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통해 2년간 연속지원이 가능하다. 사업 지원은 완주군민이자 장소를 기준으로 거주(최대 8인 이내)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소정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wc-gongseong@naver.com)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완주문화장날' 공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홈페이지(www.wanjuculture.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완주문화도시는 지난 2020년부터 '완주문화장날'을 통해 봉동 우동공원, 삼례 하리운동장, 용진 누에살롱(구 잠종장 관사), 고산 구 삼기초등학교 등 20여곳을 발굴했으며 주민기획단의 손길을 거쳐 주민문화거점으로 활용해왔다. /완주=염재복 기자



누에살롱 전경

(사진=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제공)

김제, '어르신 섬김 으뜸마을 인증사업' 계획 수립

5곳 선정해 마을별로 독창성 있는 사업 추진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전국 제일의 어르신 섬김도시를 만들기 위한 '어르신 섬김 으뜸마을 인증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어르신 섬김 으뜸마을은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사라져가는 가족관계 회복과 효문화 확산으로 경로효친 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5개 마을이 최초 선정됐으며, 올해도 5개 으뜸마을을 선정해 마을별로 독창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어르신 섬김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중 최종 으뜸마을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마을에는 인증패와 함께 복지사업비가 1년간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은 오는 26일 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어르신 섬김 으뜸마을 사업은 주민화합을 통해 침체된 마을 분위기를 살리고 효 문화 확산으로 상생하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라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2024년 김제시 귀농·귀촌 기본교육 수료식 개최

김제시농업기술센터는 16일 김제시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 2층 대강당에서 2024년 귀농·귀촌 기본교육 교육생 37명을 대상으로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본교육은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16일까지 약 2개월간 총 17회 100시간으로 추진하는 교육으로, 작목별

재배기술, 농업 경영 마케팅, 귀농귀촌 정책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는 교육생 설문조사, 개회 및 축사, 수료증 수여, 단체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되었고 기본교육 수강생 43명 중 37명(86%) 이상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수료증을 품에 안은 한 교육생은 "귀농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쉽지 않았는데 체계적인 이

론교육을 통해 내만의 기술을 습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박금남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교육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자 하는 교육생들의 귀농귀촌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16일 유희태 군수는 군청 민원실에서 60여 명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

유희태 군수, “군민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

완주군, 민원 업무 담당자 친절 교육 · 애로사항 청취

유희태 완주군수가 일일 친절 교관으로 나서 민원 업무 담당자를 교육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16일 유 군수는 군청 민원실에서 60여 명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

완주군은 매주 민원실 직원들이 일일 교관이 돼 사례 중심 친절 실천 다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은 군수가 직접 친절 교관이 돼 '군민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를 주제로 '친절 행정'을 강조했다.

유 군수는 "민원인을 친절히 대하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 자세이며, 민원 처리는 신속·정확해야 함"을 강조하고 "민원실은 완주군의 얼굴로서 민원인

을 내 가족과 같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갈수록 증가하는 악성·특이민원으로 고생하는 민원담당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슬기로운 대처법을 전달하는 대화의 장도 펼쳤다.

유 군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한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을 기하고, 군민과도 더욱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7년 연속은 전북에서 완주군이 유일하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전통시장 5일장' 오늘부터 확대 운영

시장 입구서 김제동헌 앞 광장 부근까지 넓혀... 상품도 다양

김제전통시장 5일장이 오는 17일부터 연중 끝자리 2일, 7일날 전통시장 입구에서 김제동헌 앞 광장 부근까지 확대 운영된다.

지난해 4월 12일 개장된 5일장은 성산사거리~부지수산까지의 도로를 전면 교통 통제에 안전한 정보기 환경을 조성했으며, 되찾은 시골 장터의 모습에 많은 시민의 발걸음을 이끌어 이용객들의 큰 호응 속에 개장 1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기존 5일장과 전통시장 입구 사이 차량 통행으로 장터 노선이 단절돼 5일장의 북적거리는 인파가 전통시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제전통시장과 5일장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존 5일장이 끝나는 지점과 전통시장 입구를 연결하고, 김제동헌 앞 부근까지 구간을 확대해 전보다 더욱 다채로운 상품

과 프로그램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확대 운영에는 약 50여개의 노점 점포뿐만 아니라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와 사회적경제기업 프리마켓 등을 포함하고, 계속해서 품목을 다양화하고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물품 판매를 유도해 시장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매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공연, 지역문화 예술인 초청 등 소규모 거리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5일장 구역 내 병행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확대 개장 첫 날은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프로그램과 연계, 초청 가수 공연과 시민 노래자랑 등을 선보인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확대 운영되는 김제전통시장 5일장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